

중·고등학생용 가정교과 세 행동체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최성연[†]

전남대학교 조교수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ree Systems of Action Scale in Home Economics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Choi, Seong You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scale that can grasp the reality of the three systems of action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home economic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105 questions, 35 questions for each systems of action, were developed as a 5-point Likert scale in order to measure technical action, communicative action, and emancipative action as preliminary questions by review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related to the three systems of action. The procedure for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developed preliminary questions by reviewing the content validity of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expert was executed twice. A preliminary survey was conducted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th 70 developed preliminary questions, and 166 copies were collected. As a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to test the validity of the scale, it was found that 38 questions 7 factors were appropriate. After constructing this survey based on the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is survey was conducted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548 copies were collected an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A total of 38 questions were finally select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cluding basic living ability 5 questions, self-management ability 4 questions, information processing ability 4 questions, communication/interpersonal ability 12 questions, critical thinking ability 3 questions, decision-making ability 7 questions, empowerment 3 questions. The Model Fit was $\chi^2=1846.741(p<.001)$, CFI=0.865, TLI=0.853, RMSEA=0.058, and the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for each question was more than 0.5, so it can be seen as a suitable measurement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status of the three systems of action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home economics. The three systems of action scale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self-acceptance, future planning, intimacy, uniqueness, which are sub-factors of the self-identity scale, and social participation scales therefore confirmed that they have recognized concurrent validity.

Key words: 세 행동체계(three systems of action), 중·고등학생(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척도 개발(scale development), 타당화(validation)

[†] 교신저자: Choi, Seong Youn, Yongbong-ro 77, Buk-gu, Gwangju, 61186, Republic of Korea

Tel: +82-62-530-2525, Fax: +82-62-530-2529, E-mail: taeresa@gmail.com

본 연구는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과제번호: 2022-2537)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교육학은 가정학을 모학문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학의 사명은 개별 단위로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 제도로서 가족이 행동체계를 구축하고 유지시키는 데 있다. 행동체계는 개인의 자아 형성을 성숙하게 하고, 사회적 목표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비판과 협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이끈다(Brown & Paolucci, 1979, p.23). 행동(action)은 비자발적이거나 습관적인 행동(behavior), 단순히 하는 것, 공간에서 육체적인 움직임, 공식화되고, 제시된 어떤 것의 제정이나 성과와 구별되며, 행동의 결정에 의식적으로 도달하는 행위자의 생각과 의도가 담겨진 최고점으로 행위자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의미가 정해진다(Brown, 1985). 이에 일상 생활에서 인간의 행동은 모두 인간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McGregor, 2020). Brown(1980)은 Habermas의 인식론에 기초하여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해방적 행동의 세 행동체계 개념을 제시하였고, 세 행동체계는 가정과교육에서 실천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세 행동체계와 관련하여 외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가정생활의 세 행동체계를 잘 이뤄나가는 것을 핵심 개념으로 하여 가정학의 사명, 임무, 목표 등을 제안한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세계가정학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대회에서도 21세기 가정학의 비전으로 제시된 바 있다(Yoo & Lee, 2011). 또한 미국 가정과교육학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Administrators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NASAFACS])에서는 2008년에 과정 질문을 개발하여 2028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과정 질문은 학생들이 세 행동체계를 고려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사고 과정(thinking), 의사소통 과정(communication), 리더십 과정(leadership), 관리 과정(management)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 각 내용 기준에 세 행동과 관련된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NASAFACS, 2008). 우리나라에서도 가정과교육의 비전과 사명으로 2019년 한국가정과교육학회 30주년 학술대회에서 개인과 가족이 세 행동체계의 실천을 통해 행동 주체의 역

할을 다하며, 가정과 교사는 학생과 가족이 가정과교육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해 나갈 것을 제시한 바 있다(Yoo et al., 2019). 이와 같이 세 행동체계는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정과교육에서 지향해야 하는 사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정과교육에서 세 행동체계에 대한 연구는 1990년도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세 행동체계에 따른 가정과교육 내용에 대한 가정과교사의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Lee & Cho, 2005; Oh & Chae, 2005; Ryu et al., 1997; Yoo & Kim, 1997)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2009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세 행동체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한 연구(Ju & Yoo, 2016b), 핵심 개념을 세 행동체계와 통합하여 가정과교과 내용 요소의 분절성을 개선하여 가정과 교육과정 설계안을 개발한 연구(Ju & Yoo, 2016a), 세 행동체계의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교 가정과교과의 학습목표와 활동과제를 비교한 연구(Choi, & Chae, 2020a), 세 행동체계를 융합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식생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업을 평가한 연구(Choi, 2020; Choi, & Chae, 2020b)가 이루어졌다. Choi(2020)는 세 행동체계를 융합한 수업은 학습자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 학습 내용을 깊게 이해하면서 삶의 변화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되었지만 수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개발을 통해 가정과교육에서 제시하는 세 행동체계와 관련된 연구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선행연구(Lee & Cho, 2005; Oh & Chae, 2005; Ryu et al., 1997; Yoo & Kim, 1997)에 의하면 가정과교사들의 세 행동체계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과교육에서 세 행동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사명인 만큼 세 행동체계를 융합한 수업을 실행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세 행동체계를 융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한 연구는 이루어졌지만 세 행동체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과교육에서 중·고등학생용으로 세 행동체계인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해방적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가정과교육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세 행동체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로 가정과교사는 가정과교육의 사명 달성 여부의 타당성을 확보하

고, 학습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중·고등 학생은 자기 반성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비판과 학 관점의 가정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정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중·고등학생용 가정교과의 세 행동체계 측정도구를 개발한다.
- 둘째, 중·고등학생용 가정교과의 세 행동체계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세 행동체계의 개념

세 행동체계는 Brown과 Paolucci(1979)가 ‘Home Economics: A Definition’에서 행동체계의 개념을 소개한 데서 비롯되었고 가정학과 가정과교육의 사명이나 목표에 핵심 개념으로 포함되어 있다. Brown(1980)은 개인과 가족이 직면하는 실천적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세 행동체계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세 행동체계는 Habermas(1968)의 ‘Knowledge and Human Interest’에서 지식을 이끄는 인간의 세 가지 관심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관심인 기술적 관심, 의사소통적 관심, 해방적 관심에 상응하는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해방적 행동이 세 가지 행동에 해당되며, 이러한 행동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모두 필요하며, 세 가지 행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에 세 행동체계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세 행동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가정학의 사명, 임무, 목표 등에 제안된 것을 볼 수 있다(Yoo & Lee, 2011). 우리나라도

2007 개정교육과정부터 부분적으로 세 행동체계를 도입하여 실천적 추론을 통해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실천의 의미를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자기 반성적 행동의 유기적인 통합 체계로 정의하여 교수·학습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2015 개정 가정과교육 과정에서는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여 전 생애에 걸쳐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반성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핵심역량에 생활자립능력, 관계형성능력,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역량은 총체적인 성격이라서 단편적으로 어느 한 행동체계로 보기에 어려울 수 있으나 Habermas(1968)가 제시한 관심의 영역과 행동의 유형과 관련하여 세 행동체계와 관련지으면 다음과 같다. 생활자립능력은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발달 과정에서 자이정체감을 형성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수행할 수 있으며, 주도적인 관점에서 자기관리 및 생애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Ministry of Education[MOE], 2015, p. 4)으로 이는 자연세계를 대상으로 한 노동 영역에 대한 관심이며, 자기관리와 생애 설계를 위한 기술적·목적적 행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행동(Habermas, 1968)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관계형성능력은 “대상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과 공감, 배려와 돌봄을 통해 공동체 감수성을 함양하여 자신과 가족, 친구,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작용과 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 능력”(MOE, 2015, p. 4)으로 이는 사회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 행위영역에 대한 관심이며, 상호교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의사소통적 행동(Habermas, 1968)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그 배경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의 대안을 탐색한 후, 비판적 사고를 통한 추론과 가치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MOE, 2015, p. 4)으로 이는 실천적 삶의 영역에 대한 관심이며, 문제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삶을 재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해방적 행동(Habermas, 1968)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해방적 행동의 정의 및 관련변인

세 행동체계는 가정생활을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소비생활, 가족생활로 보는 관점에서 교육과정 구성을 비판과학 관점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틀을 제공한다.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해방적 행동의 정의와 Staaland와 Strom(1996)이 제시한 세 행동체계를 기르기 위해 배워야 하는 지식, 기술, 태도의 예는 다음과 같다.

기술적 행동은 기술적 관심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인간의 자기보존 과정에서 자연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노동에 관심이 있다. 이는 생존을 위한 기술적·목적적 행동으로 나타난다(Habermas, 1968). Habermas는 기술적 행동이 나타난 사례를 자연과학에서 찾았고, 기술적 관심을 인식적으로 실행할 때는 인과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며, 이렇게 정립된 인식 유형을 경험·분석적 과학으로 보았다. Yoo와 Lee(2011)는 가정교육에서 기술적 행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가족이 생존을 위해서 매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환경적 조건을 통제하기 위하여 경험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행동이다. (Yoo & Lee, 2011, p. 43)

Staaland와 Strom(1996)은 기술적 행동을 구축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지식, 기술, 태도로 가족들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도울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확인하는 것, 가족들이 어떻게 기술적 정보, 방법, 도구들을 사용하는가를 설명하는 예를 제시하는 것, 가족의 물질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가족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을 확인할 것을 제안하였다.

의사소통적 행동은 의사소통적 관심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일상 언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적 삶에 있어서 상호주관적 이해를 위한 상호행위에 관심이 있다. 이는 사회 규범에 대한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Habermas, 1968). Habermas는 의사소통적 행동이 나타난 사례를 정신과학에서 찾았고, 의사소통적 관심을 인식적으로 실행할 때는 사실에 담긴 의미와 의도를 이해하고 해석을 하며, 이렇게 정립된 인식의 유형을 역사·해석적 과학으로 보았다. Yoo와 Lee(2011)는 가정교육에서 의사소통적 행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 서로의 의도, 믿음, 신념, 가치, 목표, 태도 등을 이해하고, 어떠한 목적을 추구할 것인가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정한 합의에 이르고자 하는 인간 상호작용이다(Yoo & Lee, 2011, p. 45).

Staaland와 Strom(1996)은 의사소통적 행동을 배우기 위해서 조정, 분담 활동, 사회화와 관련하여 가족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붕괴된 의사소통체계를 분석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해방적 행동은 해방적 관심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자아형성의 결정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과정 속에 들어 있는 왜곡의 구조들을 밝히기 위한 실천적 삶에 관심이 있다. 이는 자기반성, 신념, 행동,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인간의 자율성을 위해 필요한 행동으로 나타난다(Habermas, 1968). Habermas는 해방적 행동이 나타난 사례를 정신분석학에서 찾았고, 해방적 관심을 인식적으로 실행할 때는 자기를 반성하고, 사회를 비판하며, 이렇게 정립된 인식 유형을 비판적 과학으로 보았다. Chae 외(2017)는 가정교육에서 해방적 행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가족 속에 스며든 특정한 성이나 세대에 대한 고정관념, 허위인식, 그리고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하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개인과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행동이다. (Chae et al., p. 52)

Staaland와 Strom(1996)은 해방적 행동을 구축하기 위해 매일의 생활에서 성찰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확인하는 것, 태도, 신념, 사고와 행동패턴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 부모-자녀 관계 같은 다양한 매체에 내재된 문화적 가정을 확인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세 행동체계는 2015 개정 가정교육과정에서 교과역량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Yang과 Yoo(2018)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역량 교육과정의 완성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핵심역량과 2015 개정 가정교육과정의 교과 핵심역량에 미래 사회를 대비한 핵심역량을 추가하고 자주적인 행동과 사회참여를 해방적 행동에 추가하여 <Table 1>과 같이 세 행동체계로 범주화하였다.

기술적 행동은 기초학습능력, 정보처리능력, 창의융합능

Table 1.
Key Competencies for Home Economics Education under the Three Systems of Action

행동체계	핵심역량	내용요소
기술적 행동	기초학습능력	기초적 읽기, 기초적 쓰기, 수리력, 탐구력, 도구사용능력, 지식의 적용능력 등
	정보처리능력	정보수집, 정보분석, 정보활용, 정보윤리, 매체활용능력 등
	창의융합능력	창의적 사고기능, 창의적 사고성향, 타분야 지식, 기술의 융합, 연계, 활용능력 등
	생활자립능력	자아정체성 확립, 여가선용, 건강관리, 합리적인 경제생활, 기본생활습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생활역량, 가족생활과 일의 조화능력, 합리적인 소비와 자원 활용, 진로개발능력, 직업윤리 등
의사소통적 행동	심미적 감성능력	정서적 안정감, 예술적 문화적 감수성과 상상력, 타인의 경험에 대한 공감 능력, 가치, 다양성의 이해와 존중 등
	의사소통능력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 능력, 쓰기, 읽기, 텍스트 이해, 매체 활용 및 이해, 타인 이해 및 존중, 배려, 갈등조정 등
	관계형성능력	배려, 공감, 돌봄, 갈등관리 및 조절, 관계형성, 리더십, 개방성 및 유연성(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관용 등), 존중, 협동 등
	공동체 의식	시민의식(공공의식), 준법정신, 환경의식, 윤리의식, 봉사정신, 규범 및 질서의식, 협동, 배려, 참여와 책임의식 등
해방적 행동	국제사회 문화 이해	우리문화이해, 다문화이해, 문화향유능력, 국제사회이해, 외국어 소양 등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	의사결정능력,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가치판단력, 실천의지, 추론능력 등
	자주적인 행동	임파워먼트, 자율(autonomy), 책임감, 성숙, 도덕적 타당한 행동 등
	사회참여	개인적·사회적 책무성, 참여와 공헌 등

Source. Yang & Yoo(2018) pp. 44-45.

력, 생활자립능력으로 범주화될 수 있으며, 의사소통적 행동은 심미적 감성능력, 의사소통능력, 관계형성능력, 공동체 의식, 국제사회 문화 이해로 범주화될 수 있다. 해방적 행동은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 자주적 행동, 사회참여로 범주화될 수 있다.

3. 중·고등학생용 척도 개발 선행 연구

중·고등학생을 위한 척도 개발 연구는 주로 청소년의 심리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학업탄력성 척도 개발(Oh & Kim, 2012), 정서조절방략 척도 개발(Choi & Choi, 2014), 한국형 학교생활참여 척도 개발(Shin & Yum, 2015), 영성 척도 개발(Lee & Kim, 2010), 학습동기 척도 개발(Lee & Jung, 2007), 자기주도학습 능력 척도 개발(Chung, O. et al., 2012)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교과와 관련된 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에서 법의식 척도를 개발한 연구(S. W. Chung

et al., 2012), 체육과에서 건강관리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건강관리능력 척도를 개발한 연구(Cho & Kim, 2018), 체육수업에서 팀유대감 척도를 개발한 연구(J. Kim et al., 2014)가 진행되었다. S. W. Chung 외(2012)는 올바른 법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법의식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법의식의 분야를 법지식, 법인식, 법감성, 법태도, 법행동 차원으로 개발하여 각 차원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최종 문항을 구성하였다. Cho와 Kim(2018)은 중·고등학생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능력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사전 연구를 통해서 척도를 개발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타당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5요인 18개 문항으로 정신 건강 6개 문항, 운동노력 3개 문항, 영양 및 식습관 3개 문항, 위생관리 3개 문항, 건강책임 3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J. Kim 외(2014)는 체육수업에서 팀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교수방법의 효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팀유대감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선행연구를 통해서 척도를 개발한 후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1요인 6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가정교과에서는 가정교과교사를 대상으로 척도를 개발한 연구(Lee & Yu, 2017; Park, 2008)는 진행되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척도를 개발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Park(2008)은 가정교과교사를 대상으로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전문성과 교사 효능감을 포함하여 가정교과교사의 임파워먼트 측정 구성요소와 문항을 추출하고,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후 요인분석을 통해서 6요인으로 수업운영능력, 영향력, 자율성, 신념, 전문성, 윤리성의 19개 문항을 최종적으로 개발하였다. Lee와 Yu(2017)는 가정교과교사를 대상으로 가정교과교육학 지식(H-PCK)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문헌 연구를 통해 기초 문항을 구성한 후 가정교과교사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나서 예비조사, 본 조사를 거쳐 가정교과관 지식 6문항, 가정교과교육과정 지식 9문항, 가정교수업전략 지식 7문항 총 22개 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척도 개발은 각 교과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문헌 고찰을 통해 척도를 개발한 후 전문가의 검토와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화 작업을 거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타당화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Table 2>와 같이 예비조사 설문과 본 조사 설문에 참여하였다. 예비조사 설문에는 경기지역의 중학생 73명, 고등학생 93명 총 166명이 참여하였다. 남학생은 82명, 여학생은 84명이다. 본 조사 설문에는 경기지역의 중학생 310명, 고등학생 238명 총 548명이 참여하였다. 남학생은 275명, 여학생은 273명이다.

Table 2.
Research Subjects (Unit: number of people)

구분	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성별				
예비조사	남		45	37	82
	여		28	56	84
	전체		73	93	166
본 조사	남		179	96	275
	여		131	142	273
	전체		310	238	548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예비문항을 개발하고,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토,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예비조사, 본조사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1) 문헌조사 및 예비문항 개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세 행동체계의 영역을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해방적 행동으로 구성하였고, 각 행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용도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각 행동의 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Yoo와 Lee(2011), Chae 외(2017), Staaland와 Strom(1996), Habermas(1968), Kim(2015)의 내용을 고찰하여 각 행동의 실태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문항 형식은 5점 리커트 척도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개발하여 ‘매우 그렇다.’로 갈수록 능력이 많은 것으로 해석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문항은 기술적 행동은 12문항, 의사소통적 행동은 18문항, 해방적 행동은 14문항이었다. 여기에 Yang과 Yoo(2018)의 연구에서 제시한 세 행동체계에 따른 가정교과교육의 핵심역량과 관련되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척도를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문항을 보완하였다.

기술적 행동과 관련된 핵심역량으로 정보처리능력, 생활자립능력이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내용요소인 건강관리, 여가선용, 자아정체감, 진로개발능력, 생활역량 척도를 개발한 선행연구(Gong, 2019; Kwon, 2019; Lee, 2002; Shim, 2011)를 참고하여 23개 문항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였다. 의사소통적 행동

과 관련된 핵심역량으로 심미적 감성능력, 의사소통능력, 공동체 의식이 있고, 이에 해당되는 내용요소인 공감, 경청, 타인 이해 및 존중, 공동체 의식 척도를 개발한 선행연구(E. H. Lee, 2014; Kim, 2016; Lee, 2019; Shin, 2017)를 참고하여 17개 문항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였다. 해방적 행동과 관련된 핵심역량으로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 자주적인 행동이 있고, 이에 해당되는 내용요소인 의사결정능력, 비판적 사고력, 임파워먼트 척도를 개발한 선행연구(Kim, 2013; Nam, 2017; Oh, & Lee, 2021; Park, 2019)를 참고하여 21개 문항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였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예비문항은 기술적 행동 35문항, 의사소통적 행동 35문항, 해방적 행동 35문항 총 105개 문항이었다. 작성한 문항은 중학교 1학년 학생 5명에게 안면 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여 내용이 모호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2) 전문가 내용타당도 평가

예비문항의 내용 타당도 검토는 두 차례에 걸쳐서 가정교육학 전문가에게 받았다. 1차 내용타당도 검토는 2022년 6월 21일~7월 4일에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하였고, 전문가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교육학을 전공한 교수 5인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고, 박사과정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가정교과교사 4인, 총 9인으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행동체계별로 각 35개 문항이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해방적 행동을 측정하는데 타당한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 문항 내용이 중복되거나 모호한 문항에 대

해서 개방형으로 평가의견란에 기술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타당도는 Lawshe(1975)가 제안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산출식에 따라 계산하였고,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ratio, CVR)값이 꽤널 9명 기준 .78이상일 때 타당하다고 보았다.

$$\text{내용타당도비율(CVR)} = \frac{N_e - N/2}{N/2}$$

*N: 전체 전문가의 수

*N_e: 4점 또는 5점으로 응답한 전문가의 수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CVR 값이 최소 기준인 .78미만인 문항과 문항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삭제하고, 모호하다고 지적받은 문항은 수정하여 총 69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69개 문항을 선행연구(Lee et al., 2009; Yang, & Yoo, 2018)를 토대로 하여 각 행동체계의 요인을 정하고 이에 따라서 분류하는 작업을 거쳤다. 기술적 행동의 요인은 기초생활능력, 자기관리능력, 정보처리능력으로, 의사소통적 행동의 요인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으로, 해방적 행동의 요인은 비판적 사고력, 의사결정능력, 임파워먼트로 구성하였다. 예비문항에 대해서 1차 내용타당도 검토를 의뢰한 전문가 중에서 가정교육 전공 교수 4인, 가정교과 교사 2인, 총 6인에게 2022년 7월 10일~7월 15일에 이메일을 통해서 내용타당도 검토를 받았다. 2차 전문가 타당도 검사는 1차 타당도 검사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행동체계별로 각 23개 문항이 기술적 행동,

Table 3. Expert Group for the 1st Content Validity Review

전문가	교육경력	최종학력	직위	전공
A	25년 10개월	박사	대학교 교수	가정교육학
B	27년	박사	대학교 교수	가정교육학
C	33년	박사	대학교 교수	가정교육학
D	19년 4개월	박사	대학교 교수	가정교육학
E	19년	박사	대학교 교수	가정교육학
F	20년	박사과정	중학교 교사	가정교육학
G	20년 3개월	박사과정	고등학교 교사	가정교육학
H	19년	박사수료	중학교 교사	가정교육학
I	12년 4개월	박사수료	중학교 교사	가정교육학

의사소통적 행동, 해방적 행동을 측정하는데 타당한지, 각 요인에 맞게 문항 내용이 타당한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 문항 내용이 중복되거나 모호한 문항과 타당도에 대한 세부 의견을 평가의견란에 기술하도록 하였다. 내용타당도의 기준은 내용타당도(CVR)값이 패널 6명 기준 .99이상일 때 타당하다고 보았다.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CVR 값이 최소 기준인 .99미만인 문항은 삭제 또는 수정·보완하여 예비조사 실시 문항 70개를 완성하였다.

3) 예비조사 실시

70개의 예비문항을 경기지역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100명 총 200명을 편의 표집하여 KSDC(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ter)를 활용하여 2022년 7월 18~20일에 온라인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결측치가 없는 166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4) 본 조사 실시

본 조사는 경기지역의 중학생 320명, 고등학생 250명 총 570명을 편의 표집하여 KSDC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2022년 12월 19일~30일에 실시하였다. 세 행동체계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아정체감 척도(H. J. Lee, 2014)와 사회참여 척도(Nam, 2017)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자아정체감과 사회참여는 Brown과 Paolucci(1979)가 주장한 세 행동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므로 자아정체감과 사회참여 척도를 측정하여 세 행동체계 척도개발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 척도(H. J. Lee, 2014)는 자기 수용성, 미래계획성, 친밀성, 주체성, 독특성을 요인으로 하여 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간 신뢰도(Cronbach's α)는 .852로 우수한 수준이다. 사회참여 척도(Nam, 2017)는 사회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 묻는 5개 문항으로 문항간 신뢰도(Cronbach's α)는 .812로 우수한 수준이다. 회수된 결측치가 없는 548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여 세 행동체계 척도의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해방적 행동의 최종 문항을 선정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7.0과 IBM SPSS AMOS 21.0을 활용하여 예비조사에 대해서는 문항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 본 조사에 대해서는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1) 문항 분석

예비조사 후에는 SPSS 27.0을 이용하여 문항에 대한 문항-총점과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고 문항의 신뢰도를 검사하여 문항 간 상관이 .70을 초과하거나 문항-총점 간 상관이 .30이하로 낮아(Gable & Wolf, 1993)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을 제거하였다.

2) 탐색적 요인분석

세 행동체계의 하위요인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파악하고자 예비문항 69개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주축 요인 추출을 실시하였고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해방적 행동은 요인간 관련이 있으므로 사각회전 중에서 프로맥스(promax) 회전을 적용하였다. 구형성 검증을 위해 KMO(Kaiser-Meyer-Olkin) 적합성 지수와 Bartlett 검정 결과를 확인하였고,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값과 스크리 검정(scre test)을 고려하였다. 각 하위요인별로 부적절한 문항을 제거하여 본 조사 문항 38개를 추출하였다.

3) 확인적 요인분석

본 조사 후에는 세 행동체계 척도의 적합도를 알아보기와 AMOS 21.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였고, 세 행동체계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별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를 산출하여 개념타당성, 판별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세 행동체계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4) 공인타당도 검증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세 행동체계 척도와 관련성이 높은 자아정체감(H. J. Lee, 2014), 사회참여 척도(Nam, 2017)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5>와 같다. 검토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적 행동

기술적 행동에 해당되는 문항에서 내용타당도비율(CVR)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항은 15개 문항이었다. 그중에서 총 12개 문항인 16, 18~28번은 삭제하였는데, 16번은 자원을 교환한다는 것보다 합리적 소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18~28번 문항은 해방적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하였다. 내용타당도비율(CVR)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항 중에서 7, 9, 14번 문항은 수정하였는데, 7번에서 가족에 적합한 옷차림은 의사소통적 행동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차림으로 수정하였다. 9번은 생활용품이 넓은 정의여서 예시를 제시하여 의미를 명료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옷감을 활용하여 에코백, 쿠션 등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14번은 의미가 모호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정보 수집과 활용을 구체화하여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외에도 내용타당도비율(CVR)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전문가가 지적한 문항의 중복 사항을 확인하였다. 즉, 30번은 25번 문항과 중복되며, 해방적 행동을 포함한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다. 또한, ‘알고 있다’를 ‘안다’로,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문항의 동사를 통일하였고, 가족과 관련된 내용은 의사소통적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신과 관련하여 자신이 주체가 되는 문장으로 수정하였으며, 내용상 단순한 행동으로 기술한 것을 경험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더 구체화하여 수정하였고,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수정을 제한한 내용에 따라 모두 수정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가정교과에서 중·고등학생의 세 행동체계 척도 개발을 위한 내용구성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세 행동체계의 예비척도 문항을 개발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아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척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조사 결과

문헌조사 결과 세 행동체계는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해방적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able 4>와 같이 각 행동체계가 정의되었다. 1차 예비척도 문항을 각 행동체계별로 35개 문항씩 총 105개 문항을 개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2) 전문가 내용타당도 결과

(1) 1차 내용타당도 결과

1차 예비척도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는 <Table

Table 4. Composition of the First Preliminary Scale

행동체계	정의	문항 수
기술적 행동	생존을 위해서 매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환경적 조건을 통제하기 위하여 경험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행동	35
의사소통적 행동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의 의도, 믿음, 신념, 가치, 목표, 태도 등을 이해하고, 어떠한 목적을 추구할 것인가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정한 합의에 이르고자 하는 인간 상호작용	35
해방적 행동	특정한 성이나 세대에 대한 고정관념, 허위의식, 그리고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미치는 영향을 비판하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개인과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행동	35
합계		105

Source. Chae et al., 2017; Yoo & Lee, 2011.

Table 5.

Results of the First Content Validity Review of the First Preliminary Scale Question

행동 체계	문항	CVR
기술적 행동	1. 나는 우리 가족이 가정생활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무엇인지 안다.	1.00
	2. 나는 식사 준비, 세탁, 청소 등 가사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0.78
	3. 나는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가전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1.00
	4. 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한 식단을 작성할 수 있다.	0.78
	5. 나는 가족의 음식 준비를 위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1.00
	6. 나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다.	0.78
	7. 나는 우리 가족에게 적합한 옷차림을 알고 있다.	0.11
	8. 나는 옷감의 특성에 맞게 옷을 세탁할 수 있다.	1.00
	9. 나는 우리 집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다.	0.56
	10. 나는 우리 집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방법을 안다.	0.78
	11. 나는 우리 집의 공간을 보다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	1.00
	12. 나는 우리 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	1.00
	13. 나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00
	14. 나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다.	0.56
	15. 나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활용한다.	0.78
	16. 나는 내가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다른 사람의 자원과 교환한다.	0.56
	17. 나는 필요한 자원이 없을 때 많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적절하게 대체하여 활용한다.	0.78
	18. 나는 평소에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	0.33
	19. 나는 여가 시간을 좋은 일에 사용한다.	0.11
	20. 나는 스스로 공부목표를 설정하고 잘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한다.	0.56
	21. 내 일은 내가 알아서 스스로 처리한다.	0.56
	22. 나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	0.33
	23. 나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0.33
	24.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끌리기보다는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편이다.	0.11
	25. 나는 장차 나의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0.11
	26.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하는 편이다.	0.33
	27.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0.33
	28. 나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0.56
	29. 나는 놀 때와 공부할 때를 구별할 줄 안다.	1.00
	30. 나는 항상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0.78
	31. 나는 용돈을 사용하기 전에 계획을 세운다.	1.00
	32. 나는 외출해서 돌아온 후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	1.00
	33. 나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한다.	1.00
	34. 나는 내 건강 상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	1.00
	35. 나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1.00

Table 5.
Continued

행동 체계	문항	CVR
의사 소통적 행동	1. 나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1.00
	2. 나는 부모님의 삶의 목표를 이해한다.	0.56
	3. 나는 부모님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이해한다.	0.78
	4.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	0.78
	5. 나는 의사소통을 통해 우리 가족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	0.78
	6.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기 위하여 말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몸짓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1.00
	7. 나는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가족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다.	0.78
	8. 나는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1.00
	9. 나는 가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1.00
	10. 나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 해결방안이 다를 경우 의견이 일치되도록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	0.78
	11.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의 의견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0.78
	12.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0.78
	13. 나는 무언가를 주장할 때 객관적으로 진리로 받아들여진 것을 주장한다.	0.33
	14. 나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켜야 할 행동으로 올바른 것만을 요구한다.	-0.56
	15.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대해 표현할 때 거짓이 아닌 진실한 것을 이야기한다.	0.56
	16. 나는 가족의 역할조정이나 분담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1.00
	17. 나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의사소통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0.56
	18. 나는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0.11
	19. 나는 다른 나라의 전통이나 생활 습관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0
	20. 나는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 문화가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0.33
	21. 나는 인종이 다르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11
	22. 나는 기회가 있다면 상대방의 인종, 국적, 문화권에 상관없이 친구를 사귄 것이다.	1.00
	23. 다른 친구를 욕하기 전에, 만일 내가 그 친구라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생각해본다.	1.00
	24. 재미있는 이야기나 소설을 읽을 때, 그 이야기속의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상상해본다.	0.78
	25.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1.00
	26.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나의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0.78
	27.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0.33
	28.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나의 입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1.00
	29. 나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상대방에게 말한다.	0.56
	30. 나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해하고 있다는 표정을 짓는다.	0.78
	31. 나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 내 경우는 어떠했는지를 예를 들어서 말해준다.	0.33
	32. 나는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잘 듣는다.	0.78
	33.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의 의견도 잘 듣는다.	0.78
	34. 내가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	0.56
	35. 나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는 데”라고 분명히 말한다.	0.78

Table 5.
Continued

행동 체계	문항	CVR
해방적 행동	1. 나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 되돌아본다.	1.00
	2. 나는 고정관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안다.	1.00
	3. 나는 평소에 다양한 대중매체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적 고정관념을 확인한다.	1.00
	4. 나는 우리 집의 건강한 가족생활에 방해가 되는 가족 가치관을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0.33
	5. 나는 우리 가족의 의사소통에 장애를 주는 요인을 안다.	0.56
	6. 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을 때, 그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본다.	0.78
	7. 나는 정치, 경제, 문화적 배경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0.78
	8. 나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0.78
	9. 나는 내가 굳게 믿고 있는 생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안다.	0.56
	10. 나는 과거의 내 삶에서 나를 자유롭게 못하게 만든 요소를 안다.	0.56
	11. 나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된 의사소통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다.	0.56
	12. 나는 사람들과의 갈등상황에서 해결방안이 옳은지에 대해 자유롭게 서로 검증한다.	0.56
	13. 지금의 내가 되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요인들을 안다.	0.33
	14. 나는 잘못된 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0.78
	15. 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지 않는 편이다.	0.33
	16. 나는 친한 친구가 하는 말이라도 그 말이 논리적인지 또는 앞뒤가 맞지 않는지를 따져 본다.	0.56
	17. 나는 남들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놓은 증거가 믿을 만한지를 따져본다.	0.78
	18. 나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밑에 깔려 있는 기본 생각이나 가정이 무엇인지를 따져본다.	0.78
	19. 나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도 맞는 말씀인지 꼼꼼이 따져본다.	0.78
	20.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주장이 옳지 않다고 하면 화를 내기 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꼼꼼이 생각해본다.	0.78
	21. 다른 사람이 내 생각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내 생각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0.78
	22. 나는 일상생활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의 해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해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0.78
	23.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0.56
	24. 내 생각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	0.56
	25.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해결방법을 생각해본 후 종합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려한다.	1.00
	26. 나는 최선의 해결방법을 선택할 때 그걸 썼을 때의 결과도 예측해 보려한다.	0.78
	27. 나는 결정을 내릴 때 눈앞의 결과뿐 아니라 앞으로의 결과도 고려하는 편이다.	0.78
	28. 나는 가장 좋은 해결방법을 찾으려 할 때 각 해결방법의 장점, 단점까지도 비교해 본다.	0.56
	29. 나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나와 주변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 보는 편이다.	1.00
	30.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다.	1.00
	31. 내 나이 또래의 청소년들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1.00
	32.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싶다.	0.56
	33.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	0.33
	34.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하는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0.56
	35.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에 대한 무엇인가를 시도한다.	0.56

나) 의사소통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에 해당되는 문항에서 내용타당도비율(CVR)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항은 12개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총 10개 문항인 2, 14, 15, 17, 18, 20, 21, 27, 29, 31번은 삭제하였다. 즉, 2번은 학생들 수준에서 이해하기 불가능한 내용이며, 4번 문항과 중복된다는 의견, 14번은 해방적 행동에 해당된다는 의견, 15번은 34번과 중복된다는 의견, 17번은 해방적 행동에 해당되고, 11, 12, 13, 15번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 18번은 방법과 관련된 기술적 행동에 해당된다는 의견, 20번과 21번은 의사소통 행위의 어떤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 27번은 해방적 행동에 해당된다는 의견, 29번과 31번은 다른 문항에 비해 너무 구체적이고 다른 문항과 중복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하였다. 내용타당도비율(CVR)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항 중에서 13번 문항은 수정하였는데, 13번은 중·고등학생에게 적합하지 않고,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주장한다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이외에 내용타당도비율(CVR)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전문가가 지적인 12번은 의미가 모호하여 11번과 중복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의견, 30번은 6번과 중복된다는 의견에 따라 2개 문항을 삭제하였고,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제한한 내용에 따라 모두 수정하였다.

다) 해방적 행동

해방적 행동에 해당되는 문항에서 내용타당도비율(CVR)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항은 16개였다. 그중에서 총 15개 문항인 4, 5, 9-13, 15, 16, 23, 24, 28, 32, 33, 35번을 삭제하였다. 즉, 4번은 가족생활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과 문항 안에 '건강'이라는 단어가 중복되어 다른 서술을 제안한다는 의견, 5번은 의사소통적 행동에 가까우며, 가족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어 모호하다는 것, 의사소통에 장애를 주는 요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 9번과 10번은 중·고등학생에게 부적합하다는 의견, 11번은 중·고등학생에게 어렵다는 의견, 12번은 '검증'이라는 단어가 기술적 행동에 해당되며, 문장이 모호하다는 의견, 13번은 내용이 두루뭉술하다는 의견, 15번은 17번과 중복된다는 의견, 16번은 의사소통의 엄밀성과 관련된 의사소통적 행동이라는 의견, 23번은 22번과 중복된다는 의견, 24번은 20번과

중복된다는 의견, 28번은 기술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기술적 행동에 해당된다는 의견, 32번은 의사소통적 행동에 해당된다는 의견, 33번은 학생들이 그 역량이 있는지 판단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 35번은 지역사회가 중심인 것으로 느껴진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하였다. 그 외에 내용타당도비율(CVR)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34번 문항은 수정하였는데, '지역사회에서 하는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지역사회에서 하는 행사나 활동에 참여한다'로 수정하였다. 이외에 내용타당도비율(CVR)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전문가가 지적인 내용으로 타당도가 낮은 문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논리적 사고력, 가치판단력, 실천의지, 추론능력과 관련된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 자주적인 행동으로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와 관련하여 사회참여에 대한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항을 추가하였다. 실천의지와 관련하여 잘못된 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항, 추론능력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주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일지 생각해보는 문항, 가치판단과 관련하여 해결책을 쓴 후에 무엇이 잘되었고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보는 문항,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자신이 사회에 무엇인가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는 문항,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끌리기보다는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이끈다는 문항,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제한한 내용에 따라 모두 수정하였다.

(2) 2차 내용타당도 결과

1차 예비척도 문항을 내용타당도 검토에 따라 수정·보완한 기술적 행동 23개, 의사소통적 행동 23개, 해방적 행동 23개 문항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각 행동체계별 요인에 따라 분류하고, 전문가의 2차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기술적 행동

기술적 행동은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 요인으로 기초생활능력, 자기관리능력, 정보처리능력으로 구성되었다. 기초생활능력은 가정교과에서 기초학습능력에 해당되는 능력으로 지식의 적용능력, 탐구력, 도구사용능력이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관리능력은 자신의 행동과 환경을 조절하

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능력으로 기본생활습관, 건강관리, 합리적 경제생활이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처리능력은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정보 활용, 매체활용이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Lee et al., 2009).

기술적 행동의 2차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 내용타당도비율(CVR)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항은 6개로 5, 7, 9, 15, 18, 19번이었다. 5번은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요소에 조리 원리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있으므로 교육과정과 척도가 밀접하게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다양한 조리 방법을 활용하여 음식을 만들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7번은 체형에 맞는 옷차림이 존재하는지, 내용에 낯선 한 체형에 대한 가치가 담겨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신체적

특성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9번은 옷감을 활용하여 에코백, 쿠션 등 자세한 예시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지만 이보다는 기초바느질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기초바느질을 활용하여 쿠션 등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다.’로 수정하였다. 또한, 18번은 위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위생관리를 위해 화장실 이용 후, 식사 전, 외출 후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다.’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15번과 19번은 이종질문이라는 의견을 수용하여 ‘건강을 위해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꼭 챙겨 먹는다.’로 수정하였다.

이외에 내용타당도비율(CVR)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전문

Table 6. Results of the Review of the Secondary Preliminary Scale and Secondary Content Validity of Technical Action

요인	번호	문항	CVR
기초생활 능력	1	나는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가전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1.00
	2	나는 영양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작성할 수 있다.	1.00
	3	나는 식품 표시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1.00
	4	나는 식품의 신선도와 맛이 유지되도록 안전하게 식품을 보관할 수 있다.	1.00
	5	나는 조리 원리를 활용하여 음식을 만들 수 있다.	0.67
	6	나는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적합한 옷차림을 할 수 있다.	1.00
	7	나는 내 체형에 맞는 옷차림을 할 수 있다.	0.67
	8	나는 옷감의 특성에 맞게 옷을 세탁할 수 있다.	1.00
	9	나는 옷감을 활용하여 에코백, 쿠션 등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다.	0.67
	10	나는 온도, 습도, 공기 등을 조절하여 우리 집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방법을 안다.	1.00
	11	나는 우리 집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	1.00
	12	나는 효과적인 수납 방법을 적용하여 내 방에 있는 물건을 찾기 쉽게 정리하고 보관할 수 있다.	1.00
	13	나는 우리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	1.00
	14	나는 필요한 자원이 없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원으로 적절하게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다.	1.00
자기관리 능력	15	나는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서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0.33
	16	나는 급하거나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하여 시간계획을 세운다.	1.00
	17	나는 용돈을 사용하기 전에 계획을 세운다.	1.00
	18	나는 화장실 이용 후, 식사 전, 외출 후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다.	0.67
정보처리 능력	19	나는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서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꼭 챙겨 먹는다.	0.67
	20	나는 여섯 가지 식품군에 맞추어서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1.00
	21	나는 가정생활을 위해 이용 가능한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 안다.	1.00
	22	나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00
	23	나는 수집된 정보의 핵심내용을 추출하여 이용할 수 있다.	1.00

가가 지적한 내용으로 정보처리능력에 매체활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가정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문항을 추가하였고, 23번은 구체화하여 표현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수집된 정보 중에서 내가 필요한 핵심내용을 뽑아낼 수 있다.’로 수정하였다.

나) 의사소통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은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 요인으로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으로 구성되었다. 의사소통 능력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으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관계 능력은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면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타인 이해 및 존중, 협동, 갈등 관리, 관계형성 및 공감, 리더십이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Lee et al., 2009)

의사소통적 행동의 2차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 내용타당도 비율(CVR)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항은 11개 문항으로 2, 3, 4, 7, 8, 10, 11, 14, 15, 16, 22번이었다. 2번은 3번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2번은 솔직하게 말하는 상황으로 구체화하였고, 4번은 2번과 중복되므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다. 7번은 11번과 중복

Table 7.
Results of the Review of the Secondary Preliminary Scale and Secondary Content Validity of Communicative Action

요인	번호	문항	CVR
의사소통 능력	1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기 위하여 말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몸짓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1.00
	2	내가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	0.67
	3	나는 무언가를 주장할 때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주장한다.	0.67
	4	나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0.67
	5	나는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잘 듣는다.	1.00
	6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의 의견도 잘 듣는다.	1.00
	7	나는 가족의 역할조정이나 분담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0.67
	8	나는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가족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0.67
	9	나는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가족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다.	1.00
	10	나는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0.67
대인관계 능력	11	나는 가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0.67
	12	나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 해결방안이 다를 경우 의견이 일치되도록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	1.00
	13	재미있는 이야기나 소설을 읽을 때, 그 이야기 속의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상상해본다.	1.00
	14	나는 부모님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0.67
	15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0.67
	16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의 의견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0.67
	17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1.00
	18	나는 다른 나라의 전통이나 생활 습관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0
	19	나는 기회가 있다면 상대방의 인종, 국적, 문화권에 상관없이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1.00
	20	다른 친구를 욕하기 전에, 만일 내가 그 친구라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생각해본다.	1.00
	21	나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1.00
	22	나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추구한다.	0.67
	23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나의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1.00

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의 역할을 조정하거나 집안일을 분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8번과 11번은 ‘가족’이 아니고 ‘타인’이나 ‘상대방’으로 바꿔 말해도 문제가 없다면 ‘가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되며, 11번이 ‘가족’이 아니고 ‘일반적인 타인’이라면 12번과 중복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가족’을 삭제하였고, 12번 문항도 삭제하였다. 10번은 9번과 중복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하였고, 14번과 15번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학생은 답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하였고, 16번은 6번과 중복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하였고, 22번은 의사소통적 행동과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하였다.

이외에 내용타당도비율(CVR)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전문가가 지적한 내용으로 20번은 ‘욕을 한다’는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비난’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비언어적 표현, 타인의 경험에 대한 존중, 갈등 관리, 공감, 관계 형성과 관련된 문항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해하고 있다는 표정을 짓는다.’, ‘다양한 매체 속에 담긴 정보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예술작품 관람을 통해 그 작품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선물을 받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다.’,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함께 지켜야 할 규범이 있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다) 해방적 행동

해방적 행동은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 요인으로 비판적 사고력, 의사결정능력, 임파워먼트로 구성되었다. 비판적 사고력은 살면서 마주하는 어떤 문제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감정이나 편견 없이 사물의 시시비비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가려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정의적 능력을 포함하는 사고 능력으로 사고의 공정성·독립성, 근거확인·정확성 추구, 사고의 개방성, 사고의 신중성이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Park, 2019). 의사결정능력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해결책 중 최적의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 능력으로 문제 규정, 대안 생성, 대안 평가, 최선안 선택, 최선안 평가가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Seo & Lee, 2016). 임파워먼트는 자신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신이 주체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내부의 힘을 찾는 것(Saleebey, 1992)으로 자의의식, 자기수용, 자아존중감 등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자기주장, 한계 설정, 베풀기, 문제해결 등 대인관계적 임파워먼트, 조직에 가입, 타인원조를 통한 사회 환원, 기여, 선거 참여 및 대중에 의견 표명하기 등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가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Oh & Lee, 2021).

해방적 행동의 2차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 내용타당도비율(CVR)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항은 6개로 3, 8, 18, 19, 20, 21번이었다. 3번은 의미가 명확하도록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인지 미심쩍을 때 사실을 확인해 본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수정하였고, 8번은 어떤 하위요소와 관련되는지 모호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사고의 개방성과 관련되도록 ‘의식’을 ‘고정관념’으로 수정하였고, 18번과 19번은 임파워먼트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해방적 행동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하였고, 20번은 임파워먼트 보다는 외향적인 성격을 묻는 질문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끌리기 보다는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로 수정하였고, 21번은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삭제하였다.

이외에 내용타당도비율(CVR)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전문가가 지적한 내용으로 6번과 7번은 ‘따져본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수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생각해 본다’로 수정하였고, 7번은 ‘선생님’ 보다는 ‘전문가’가 더 권위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전문가’로 수정하였고, 비판적 사고력과 관련된 사고의 독립성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어떤 말에 대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도 따라서 믿지는 않는다.’를 추가하였고, 대인관계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설득할 생각이 있다.’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Table 8.
Results of the Review of the Secondary Preliminary Scale and Secondary Content Validity of Emancipative Action

요인	번호	문항	CVR
비판적 사고력	1	나는 고정관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안다.	1.00
	2	나는 평소에 다양한 대중매체에 문화적 고정관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00
	3	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실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본다.	0.67
	4	나는 정치, 경제, 문화적 배경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0
	5	나는 남들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놓은 증거가 믿을 만한지를 따져본다.	1.00
	6	나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밑에 깔려 있는 기본 생각이나 가정이 무엇인지를 따져본다.	1.00
	7	나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도 맞는 말씀인지 꿈곰이 따져본다.	1.00
	8	나는 잘못된 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0.67
의사 결정 능력	9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주장이 옳지 않다고 하면 화를 내기 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꿈곰이 생각해본다.	1.00
	10	다른 사람이 내 생각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내 생각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1.00
	11	나는 일상생활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의 해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해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0
	12	나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나와 주변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 보는 편이다.	1.00
	13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해결방법을 생각해본 후 종합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려한다.	1.00
	14	나는 최선의 해결방법을 선택할 때 그걸 썼을 때의 결과도 예측해 보려한다.	1.00
	15	나는 해결책을 쓴 후에 무엇이 잘되었고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	1.00
임파워먼트	16	나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 되돌아본다.	1.00
	17	나는 내가 사회에 무엇인가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1.00
	18	나는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0.67
	19	나는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	0.67
	20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끌리기보다는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편이다.	0.67
	21	나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0.67
	22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다.	1.00
	23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하는 행사나 활동에 참여한다.	1.00

3) 예비조사 결과

2차 전문가 타당도 검토를 통해서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예비조사 문항의 구성은 <Table 9>와 같다. 기술적 행동과 관련된 요인은 기초생활능력 14개 문항, 자기관리능력 6개 문항, 정보처리능력 4개 문항으로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사소통적 행동과 관련된 요인은 의사소통능력 11개 문항, 대인관계능력 12개 문항으로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해방적 행동과 관련된 요인은 비판적 사고력 9개 문항, 의사결정능력 7개 문항, 임파워먼트 7개 문항으로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세 행동체계 척도의 예비조사는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적 행동 24개 문항, 의사소통적 행동 23개 문항, 해방적 행동 23개 문항으로 총 70개 문항으로 완성하였다.

2. 중·고등학생의 세 행동체계 척도의 타당성

1) 문항 분석

문항 간 상관이 .70을 초과하거나 문항-총점 간 상관이 .30 이하로 낮아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은 기술적 행동 6번이었고, 이를 제거하였다.

Table 9.
Composition of the Preliminary Survey Question

행동체계	요인	요인의 정의	하위요소	문항 번호	문항수
기술적 행동	기초생활능력	자신의 삶에 필요한 기초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의 적용 능력 • 탐구력 • 도구사용능력 	1~14	14
	자기관리능력	자신의 행동과 환경을 조절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생활습관 • 건강관리 • 합리적 경제생활 	15~20	6
	정보처리능력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수집 • 정보 분석 • 정보 활용 • 매체 활용 	21~24	4
합계					24
의사소통적 행동	의사소통능력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기 • 듣기 • 쓰기 • 읽기 	1~11	11
	대인관계능력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면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 이해 및 존중 • 협동 • 갈등 관리 • 관계 형성 및 공감 • 리더십 	12~23	12
합계					23
해방적 행동	비판적 사고력	살면서 마주하는 어떤 문제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감정이나 편견 없이 사물의 시시비비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가려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정의적 능력을 포함하는 사고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의 신중성 • 사고의 공정성·독립성 • 근거확인·정확성 추구 • 사고의 개방성 	1~9	9
	의사결정능력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해결책 중 최적의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규정 • 대안 평가 • 최선안 선택 • 최선안 평가 	10~16	7
	임파워먼트	자신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신이 주체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내부의 힘을 찾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 대인관계적 임파워먼트 •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 	17~23	7
합계					23

Table 10.
Three Systems of Action Scale Preliminary Survey Questions

행동 체계	요인	번호	문항
기술적 행동	기초 생활 능력	1	나는 영양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작성할 수 있다.
		2	나는 식품 표시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3	나는 식품의 신선도와 맛이 유지되도록 안전하게 식품을 보관할 수 있다.
		4	나는 다양한 조리 방법을 활용하여 음식을 만들 수 있다.
		5	나는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적합한 옷차림을 할 수 있다.

Table 10.
Continued

행동 체계	요인	번호	문항		
		6	나는 내 신체적 특성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할 수 있다.		
		7	나는 옷감의 특성에 맞게 옷을 세탁할 수 있다.		
		8	나는 기초바느질을 활용하여 쿠션 등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다.		
		9	나는 우리 집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		
		10	나는 효과적인 수납 방법을 적용하여 내 방에 있는 물건을 찾기 쉽게 정리하고 보관할 수 있다.		
		11	나는 우리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		
		12	나는 온도, 습도, 공기 등을 조절하여 우리 집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방법을 안다.		
		13	나는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가전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14	나는 필요한 자원이 없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원으로 적절하게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자기 관리 능력		15	나는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꼭 챙겨 먹는다.
				16	나는 여섯 가지 식품군에 맞추어서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17	나는 건강을 위해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18	나는 위생 관리를 위해 화장실 이용 후, 식사 전, 외출 후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다.
				19	나는 급하거나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하여 시간계획을 세운다.
정보 처리 능력		20	나는 용돈을 사용하기 전에 계획을 세운다.		
		21	나는 가정생활을 위해 이용 가능한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 안다.		
		22	나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23	나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4	나는 수집된 정보 중에서 내가 필요한 핵심내용을 뽑아낼 수 있다.		
의사 소통 능력		1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기 위하여 말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몸짓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2	나는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잘 듣는다.		
		3	나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해하고 있다는 표정을 짓는다.		
		4	나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는데”라고 솔직하게 말한다.		
		5	나는 무언가를 주장할 때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주장한다.		
		6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		
		7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의 의견도 잘 듣는다.		
		8	나는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9	나는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가족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다.		
		10	나는 인터넷, TV, 영화, 신문 등 다양한 매체 속에 담긴 정보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11	나는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의 역할을 조정하거나 집안일을 분담할 수 있다.		
의사 소통적 행동		12	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3	나는 음악, 미술, 영화 등 예술작품 관람을 통해 그 작품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대인 관계 능력		14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15	재미있는 이야기나 소설을 읽을 때, 그 이야기 속의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상상해 본다.		
		16	내가 선물을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선물을 받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다.		
		17	다른 친구를 비난하기 전에, 만일 내가 그 친구라면 어떻게 느낄 것인지를 생각해본다.		

Table 10.
Continued

행동 체계	요인	번호	문항
		18	나는 다른 나라의 전통이나 생활 습관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	나는 기회가 있다면 상대방의 인종, 국적, 문화권에 상관없이 친구를 사귄 것이다.
		20	나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21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나의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22	만약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3	나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함께 지켜야 할 규범이 있고 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나는 고정관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안다.
		2	나는 어떤 말에 대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도 따라서 믿지는 않는다.
		3	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인지 미심쩍을 때 사실을 확인해본다.
비판적 사고력		4	나는 평소에 다양한 대중매체에 문화적 고정관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나는 정치, 경제, 문화적 배경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나는 남들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놓은 증거가 믿을 만한지를 따져본다.
		7	나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밑에 깔려 있는 기본 생각이나 가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본다.
		8	나는 전문가가 하는 말이라도 맞는 말인지 꼼꼼이 생각해본다.
		9	나는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10	나는 일상생활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의 해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해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	다른 사람이 내 생각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내 생각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12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주장이 옳지 않다고 하면 화를 내기 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꼼꼼이 생각해본다.
해방적 행동	의사 결정 능력	13	나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나와 주변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일지 생각해 보는 편이다.
		14	나는 최선의 해결방법을 선택할 때 그 결과도 예측해 보려한다.
		15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해결방법을 생각해본 후 종합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려한다.
		16	나는 해결책을 실행한 후에 무엇이 잘되었고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
		17	나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 되돌아본다.
		18	나는 종종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19	나는 내가 사회에 무엇인가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20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끌리기보다는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21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		22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하는 행사나 활동에 참여한다.
		23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설득할 생각이 있다.

Note. 음영 부분이 본 조사에 선정된 문항이면서 최종 개발된 중·고등학생용 세 행동체계 적도 38문항임.

2)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69개 문항을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한 결과, 17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KMO 측도는 .871,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도 유의확률이 .001미만으로

나타났고, 누적분산은 60.543%로 나타났다. 스크리 검정 결과는 고유값 1을 넘는 요인은 1-8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인 7요인, 8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 행동체계 중에서 해방적 행동의 4, 5, 7번 문항,

의사소통적 행동의 1, 2, 7, 13, 15번 문항, 기술적 행동의 14, 19번 문항은 이론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다른 행동체계에 부하되어 문항을 제거하였다. 또한 1개 요인에 1개 문항이 부하된 기술적 행동의 5, 18번 문항, 의사소통적 행동의 16, 19번 문항을 제거하여 총 14개 문항을 1차적으로 제거한 후 다시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이후 다른 행동체계에 부하되거나 사전에 분류한 요인과 다른 요인에 부하되어 있는 문항들을 제거하고 다시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하는 요인분석 과정을 반복하였다. 8개 요인으로 분석되었을 경우 오직 1개 문항만이 8요인으로 부하되어 7개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18개 문항(기술적 행동의 2, 6, 8, 9, 10, 11, 13번 문항, 의사소통적 행동 4, 5, 17, 21번 문항, 해방적 행동의 1, 3, 6, 17, 18, 19, 20번 문항)이 제거되어 7개 요인의 38개 문항이 추출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7개 요인이 추출된 결과는 <Table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KMO 측도는 .896으로 나타났고,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도 유의확률이 .001미만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누적분산은 52.767%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구성된 항목을 보면, 첫 번째 요인에는 12개 문항이, 두 번째 요인에는 7개 문항이, 세 번째

Table 11.
Factor Analysis Results of the Three Systems of Action Measurement Tools

문항	요인1: 의사소통· 대인관계 능력	요인2: 의사결정 능력	요인 3 : 기초생활 능력	요인 4 : 정보처리 능력	요인 5 : 비판적 사고력	요인 6 : 자기관리 능력	요인 7 : 임파워먼트
의사소통6	0.795	-0.102	0.028	-0.080	-0.011	-0.068	0.138
의사소통18	0.784	0.007	-0.130	-0.102	-0.020	0.049	0.035
의사소통23	0.783	0.024	-0.069	0.117	-0.006	-0.015	-0.190
의사소통14	0.744	0.021	-0.041	0.226	-0.075	0.059	-0.244
의사소통8	0.720	0.098	0.149	-0.059	-0.243	-0.016	0.157
의사소통22	0.717	-0.030	0.020	-0.034	-0.034	-0.098	0.237
의사소통12	0.627	0.114	-0.126	0.065	0.001	0.089	0.208
의사소통10	0.604	-0.094	-0.008	0.091	0.398	-0.027	-0.073
의사소통20	0.599	-0.044	0.066	0.075	-0.006	-0.019	0.098
의사소통9	0.591	0.100	0.072	0.129	-0.231	0.013	0.154
의사소통3	0.586	0.068	-0.080	0.035	0.044	-0.033	-0.047
의사소통11	0.530	-0.190	-0.031	-0.002	0.359	0.071	0.290
해방14	0.102	0.735	0.030	-0.074	0.061	0.130	-0.270
해방12	0.044	0.641	-0.084	0.019	0.030	-0.114	0.264
해방16	-0.124	0.610	0.122	0.074	0.106	-0.024	-0.030
해방11	0.042	0.592	-0.289	0.073	0.107	0.021	0.200
해방15	0.327	0.558	0.054	-0.209	0.156	0.127	-0.159
해방13	0.034	0.542	0.090	0.164	-0.045	-0.143	0.047
해방10	0.296	0.307	0.070	0.146	0.035	-0.077	-0.020
기술4	-0.019	-0.032	0.779	-0.194	0.113	-0.054	0.083
기술7	-0.156	-0.020	0.708	0.167	0.060	-0.101	0.058
기술3	0.114	0.053	0.536	0.153	-0.093	0.119	-0.154
기술12	0.154	-0.095	0.481	0.280	0.014	-0.114	0.037
기술1	-0.140	0.151	0.453	-0.013	-0.019	0.310	0.005

Table 11.
Continued

문항	요인1: 의사소통· 대인관계 능력	요인2: 의사결정 능력	요인 3 : 기초생활 능력	요인 4 : 정보처리 능력	요인 5 : 비판적 사고력	요인 6 : 자기관리 능력	요인 7 : 임파워먼트
기술23	0.033	0.016	0.001	0.783	0.053	0.064	-0.083
기술22	0.127	0.027	-0.013	0.741	-0.062	0.063	-0.028
기술24	0.132	0.193	-0.010	0.457	0.129	-0.090	-0.028
기술21	0.221	-0.094	0.216	0.432	0.058	0.024	-0.020
해방2	-0.085	0.178	0.023	0.002	0.618	-0.074	0.179
해방8	-0.210	0.185	0.100	0.077	0.605	-0.087	0.180
해방9	0.195	0.214	0.201	-0.098	0.259	0.036	0.009
기술16	-0.103	0.071	-0.037	0.144	-0.114	0.714	0.115
기술15	0.175	-0.028	-0.142	-0.003	-0.042	0.534	0.057
기술20	-0.299	-0.084	-0.026	0.323	0.128	0.482	0.260
기술17	-0.017	-0.061	0.168	-0.176	-0.080	0.412	0.060
해방23	0.185	0.095	-0.021	-0.002	0.117	0.039	0.629
해방22	0.079	-0.163	0.053	-0.079	0.197	0.137	0.572
해방21	0.220	0.089	0.222	-0.147	0.006	0.204	0.409
아이젠값	12.170	2.623	1.509	1.286	0.930	0.913	0.620
공통분산(%)	32.027	6.903	3.972	3.384	2.447	2.403	1.632
누적분산(%)	32.027	38.930	42.901	46.285	48.733	51.135	52.767

KMO=.896, Bartlett's $\chi^2=3,339.109(p<.001)$

요인에는 5개 문항이, 네 번째와 여섯 번째 요인에는 4개 문항이, 다섯 번째와 일곱 번째 요인에는 3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구성된 문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첫 번째 요인은 의사소통·대인관계능력, 두 번째 요인은 의사결정능력, 세 번째 요인은 기초생활능력, 네 번째 요인은 정보처리능력, 다섯 번째 요인은 비판적 사고력, 여섯 번째 요인은 자기관리능력, 일곱 번째 요인은 임파워먼트로 명명하였다. 요인 적재값은 대부분 0.4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만족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7개 요인은 사전에 분류한 8개 요인과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8개 요인으로 고정하여 요인을 추출했을 때와 7개 요인으로 고정하여 요인을 추출했을 때에도 의사소통적 행동과 관련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은 1개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의사소통적 행동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1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적 행동은 상호간의 이해와 합의에 이르고자 하는 인간의 상호작용이므로 의사소통능

력은 대인관계능력에 기반이 되며,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에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은 구분되지 않고 1개 요인으로 분석된 것으로 판단된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세 행동체계 척도는 기술적 행동은 13개 문항으로 기초생활능력 5개 문항, 자기관리능력 4개 문항, 정보처리능력 4개 문항, 의사소통적 행동은 12개 문항으로 의사소통·대인관계능력 12개 문항, 해방적 행동은 13개 문항으로 비판적 사고력 3개 문항, 의사결정능력 7개 문항, 임파워먼트 3개 문항으로 총 38개 문항이 추출되었다.

3)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38개 문항 7요인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절대적 적합도 지수 중 χ^2 , GFI, RMSEA 값과 상대적 적합도 지수 중 CFI, NFI, TLI 값을 살펴보았다. 표본의 크기가 크고 측정변수가 많을 때 모형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CFI, NFI, TLI 값은 0~1이며, 0.9 이상이면 모델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RMSEA 값은 대략적인 기준으로 0.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0.05~0.08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0.08~0.10이면 적합도가 보통인 것으로 평가한다(Kang, 2013). 또한 각 요인의 집중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AVE)과 개념신뢰도를 산출하는데 평균분산추출값은 0.5 이상, 개념신뢰도는 0.7 이상이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모형 적합도는 <Table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hi^2=1846.741(p<.001)$, CFI=0.865, NFI=0.808, TLI=0.853, RMSEA=0.058로 나타났고, 각 문항별 표준화 계수는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세 행동체계의 요인에서 문항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행동체계 척도에 대한 모형 적합도 검증을 통해 7요인 모형은 적절한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초생활능력 요인의 평균분산추출은 0.407로 기준에 약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념신뢰도는 0.773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α 값은 0.790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기관리능력 요인의 평균분산추출은 0.290으로, 개념신뢰도는 0.610으로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α 값은 0.708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처리능력 요인의 평균분산추출은 0.535로 적합하게 나타났고, 개념신뢰도도 0.819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α 값은 0.798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대인관계능력 요인의 평균분산추출은 0.553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념신뢰도도 0.937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α 값은 0.912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력 요인은 평균분산추출은 0.393으로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념신뢰도도 0.659로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α 값은 .651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능력 요인의 평균분산추출은 0.468로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념신뢰도는 0.859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α 값은 0.827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 요인은 평균분산추출은 0.407로, 개념신뢰도는 0.697로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α 값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 행동체계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0.932로 신뢰도는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세 행동체계 척도의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위 요인 간의 관련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판별타당성의 조건은 문항 간의 평균분산추출 값이 상관계수(ρ)의 제곱값 보다 커야 하고, 표준오차에 2를 곱한 값을 상관 계수에 더하거나 빼 범위에 1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자기관리 능력과 기초생활능력 간의 상관계수(ρ)의 제곱값은 0.416으로 평균분산추출 0.29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생활 능력과 정보처리능력 간의 상관계수(ρ)의 제곱값은 0.587로 평균분산추출 0.53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대인관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 간의 상관계수(ρ)의 제곱값은 0.578로 평균분산추출 0.468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하위요인간의 상관계수(ρ)의 제곱값은 평균분산추출 값보다 작아서 판별타당성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 타당성의 두 번째 조건으로 표준오차에 2를 곱한 값을 상관계수에 더하거나 빼 범위를 확인한 결과, 1이 모두 포함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판별타당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공인타당도

세 행동체계 척도와 자아정체감, 사회참여 척도와와의 상관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먼저 세 행동체계의 하위요인과 H. J. Lee(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 간 상관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세 행동체계의 하위요인 7요인은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수용성, 미래계획성, 친밀성, 독특성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주체성은 세 행동체계의 하위요인 중에서 정보처리능력($r=.095, p<.05$), 비판적사고력($r=.123, p<.01$)과 유의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요인들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행동체계의 하위요인인 기초생활능력은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독특성($r=.421, p<.01$)과 상대적으로 상관이 높았고, 자기관리능력은 미래계획성($r=.300, p<.01$)과 상대적으로 상관이 높았으며, 정보처리능력은 독특성($r=.421, p<.01$)과 상대적으로 상관이 높았으며, 의사소통·대인관계능력은 친밀성($r=.564, p<.01$)과 상대적으로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

Table 12.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Model Fit Assessment for the Three Systems of Action Factors

요인	문항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Cronbach's α	
기술적 행동	기초 생활 능력	기술1	1.000	-	-	0.717	.407	.773	.790
		기술3	0.831	0.054	15.283***	0.721			
		기술4	0.790	0.068	11.656***	0.543			
		기술7	0.922	0.068	13.471***	0.631			
		기술12	0.940	0.064	14.722***	0.693			
	자기 관리 능력	기술15	1.000	-	-	0.631	.290	.610	.708
		기술16	1.091	0.082	13.287***	0.843			
		기술17	0.936	0.084	11.150***	0.590			
		기술20	0.663	0.072	9.158***	0.465			
	정보 처리 능력	기술21	1.000	-	-	0.616	.535	.819	.798
		기술22	1.213	0.084	14.400***	0.813			
		기술23	1.199	0.083	14.376***	0.811			
기술24		0.906	0.075	12.128***	0.634				
의사 소통적 행동	의사 소통 · 대인 관계 능력	의사소통3	1.000	-	-	0.671	.553	.937	.912
		의사소통6	1.232	0.077	15.917***	0.757			
		의사소통8	1.146	0.070	16.340***	0.780			
		의사소통9	1.089	0.071	15.309***	0.724			
		의사소통10	0.933	0.066	14.189***	0.665			
		의사소통11	0.975	0.073	13.285***	0.618			
		의사소통12	1.103	0.072	15.422***	0.730			
		의사소통14	0.990	0.068	14.666***	0.690			
		의사소통18	0.979	0.071	13.886***	0.649			
		의사소통20	1.080	0.078	13.856***	0.647			
의사소통22	1.095	0.079	13.790***	0.644					
의사소통23	0.848	0.065	13.126***	0.610					
해방적 행동	비판적 사고력	해방2	1.000	-	-	0.576	.393	.659	.651
		해방8	1.152	0.117	9.880***	0.625			
		해방9	1.062	0.106	10.036***	0.646			
	의사 결정 능력	해방10	1.000	-	-	0.622	.468	.859	.827
		해방11	1.013	0.095	10.696***	0.533			
		해방12	1.035	0.090	11.558***	0.586			
		해방13	1.140	0.088	12.941***	0.676			
		해방14	1.146	0.086	13.371***	0.707			
		해방15	1.229	0.090	13.673***	0.729			
		해방16	1.078	0.089	12.181***	0.625			
		해방21	1.000	-	-	0.693			
	임파워먼트	해방22	1.050	0.098	10.679***	0.556	.407	.670	.697
		해방23	1.181	0.091	12.938***	0.743			
적합도 지수			$\chi^2=1846.741^{***}$, $df=644$, TLI= .853, CFI=.865, RMSEA= .058						

Table 13.
Correlations Between the Three Systems of Action Subfactors

구분	상관관계						AVE
	기초생활 능력	자기관리 능력	정보처리 능력	의사소통· 대인관계 능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결정 능력	
기초생활능력(ρ^2)	1.000						.407
자기관리능력(ρ^2)	.645(.416)***	1.000					.290
정보처리능력(ρ^2)	.766(.587)***	.465(.216)***	1.000				.535
의사소통·대인 관계능력(ρ^2)	.556(.309)***	.279(.078)***	.591(.349)***	1.000			.553
비판적 사고력(ρ^2)	.496(.246)***	.469(.220)***	.507(.257)***	.454(.206)***	1.000		.393
의사결정능력(ρ^2)	.452(.204)***	.347(.120)***	.563(.317)***	.760(.578)***	.680(.462)***	1.000	.468
임파워먼트(ρ^2)	.586(.343)***	.398(.158)***	.535(.286)***	.586(.343)***	.600(.360)***	.590(.348)***	.407

*** $p<0.001$

Table 14.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Related Scale

구분	① ¹⁾	②	③	④	⑤	⑥	⑦
자기수용성	.301**	.244**	.280**	.309**	.165**	.224**	.267**
미래계획성	.323**	.300**	.255**	.215**	.268**	.283**	.300**
자아 정체감 ²⁾	친밀성	.321**	.184**	.265**	.564**	.159**	.356**
주체성	.033	-.059	.095*	.018	.123**	.035	-0.49
독특성	.421**	.271**	.418**	.455**	.348**	.412**	.351**
사회참여 ³⁾	.258**	.247**	.217**	.085*	.167**	.097**	.308**

* $p<0.05$, ** $p<0.01$

¹⁾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 · 고등학생용 세 행동체계 척도: ① 기초생활능력, ② 자기관리능력, ③ 정보처리능력, ④ 의사소통 · 대인관계능력, ⑤ 비판적사고력, ⑥ 의사결정능력, ⑦ 임파워먼트

²⁾H. J. Lee(2014)의 자아정체감 척도

³⁾Nam(2017)의 사회참여 척도

났다. 비판적사고력은 독특성($r=.348, p<.01$)과 상대적으로 상관
이 높았고, 의사결정능력도 독특성($r=.412, p<.01$)과 상대적
으로 상관이 높았으며, 임파워먼트도 독특성($r=.351, p<.01$)과
상대적으로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Nam(2017)의 사회참여 척도는 세 행동체계의 7
요인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행동체
계의 7요인 중 임파워먼트는 사회참여($r=.308, p<.01$)와 상대
적으로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비추어볼 때, 중 · 고등학생용 세 행동체계 척도는 공인타당도
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세 행동체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예비문항을 개발하
고, 두 차례에 걸쳐 가정교육학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를 검
토받았고,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예비조사 후 탐색
적 요인분석, 본조사 후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분석 및 척도의
공인타당도 분석을 실행하여 문항을 구성하였고 척도의 신뢰
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1차 예비척도 문항을 개발한

결과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해방적 행동 각 35개, 총 105개 문항이었고,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도비율(CVR)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항을 삭제하거나 수정·보완하여 2차 예비척도 문항을 개발하였다. 2차 예비척도 문항은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해방적 행동 각 23개, 총 6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토를 통해 내용타당도비율(CVR)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항을 삭제하거나 수정·보완하여 예비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문항으로 중·고등학교생 16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실시 문항은 기술적 행동 24개 문항, 의사소통적 행동 23개 문항, 해방적 행동 23개 문항으로 총 7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기술적 행동과 관련된 요인은 기초생활능력 14개 문항, 자기관리능력 6개 문항, 정보처리능력 4개 문항, 의사소통적 행동과 관련된 요인은 의사소통능력 11개 문항, 대인관계능력 12개 문항, 해방적 행동과 관련된 요인은 비판적 사고력 9개 문항, 의사결정능력 7개 문항, 임파워먼트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7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KMO 측도는 .896,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도 유의확률이 .001 미만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누적분산은 52.767%로 나타났다. 7요인은 탐색적 요인분석 전에 파악했던 8요인과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의사소통적 행동과 관련된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요인은 1개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 7요인을 의사소통·대인관계능력, 의사결정능력, 기초생활능력, 정보처리능력, 비판적 사고력, 자기관리능력, 임파워먼트로 명명하였다.

셋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된 문항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chi^2=1846.741(p<.001)$, $CFI=0.865$, $NFI=0.808$, $TLI=0.853$, $RMSEA=0.058$ 로 나타났고, 각 문항별 표준화 계수는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세 행동체계의 요인에서 문항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행동체계 척도에 대한 모형 적합도 검증을 통해 7요인 모형은 적절한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행동체계 하위요인별로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0.651-0.912로 나타났으며, 문항 전체의 Cronbach's α 값은 0.932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 행동체계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능력과 정보처리능력($r=.766$), 의사소통·대인관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r=.760$), 기초생활능력과 자기관리능력($r=.645$) 간에는 상관을 갖고 있기에 기술적 행동체계의 하위요인 간에, 그리고 의사소통적 행동체계와 해방적 행동체계의 하위요인 간에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세 행동체계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세 행동체계 척도와 자아정체감, 사회참여 척도와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세 행동체계 척도의 7요인 모두가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수용성, 미래계획성, 친밀성, 독특성과 유의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참여 척도도 세 행동체계 척도의 7요인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7요인 중 임파워먼트($r=.308$, $p<.01$)가 상대적으로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고등학교생 세 행동체계 척도는 공인타당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능력 5문항, 자기관리능력 4문항, 정보처리능력 4문항, 의사소통·대인관계능력 12문항, 비판적사고력 3문항, 의사결정능력 7문항, 임파워먼트 3문항 총 38문항으로 구성된 측정 도구는 중·고등학교생의 세 행동체계 실태를 측정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생을 위한 세 행동체계의 척도 개발을 통해 가정과교육의 사명으로 여겨지는 세 행동체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Habermas의 세 행동체계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 있으나 가정과교육에서 세 행동체계의 하위요소에 대해 명확히 교육적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기존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에 이론이 보다 정립되면서 더 나은 하위요소로 개발된 척도와 본 연구에서 만들어진 척도를 동일한 연구 방법으로 실행했을 때 동일한 연구 결과가 산출되는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세 행동체계의 하위요소가 기술적 행동과 해방적 행동은 각 3요인, 의사소통적 행동은 1요인으로 요인수와 각 요인에 따라 문항수가 3-12개로 차이가 있었다. 이에 각 행동체계의 하위요인마다 충분한 수의 문항을 개발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볼 것을 제안한다.

셋째, 예비조사와 본조사 과정에서 결측치가 없도록 시스템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자기 보고의 단점으로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왜곡하는 경향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구인타당도의 일부 지수가 양호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설문에 참여할 때 자기 보고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척도를 타당화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자아정체감은 H. J. Lee(2014)가 사용한 척도, 사회참여도는 Nam(2017)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검사 문항이 많을 경우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것을 감안하여 척도를 선정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타당성이 검증된 다른 척도를 활용하여 공인타당도 검증을 해볼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세 행동체계의 척도개발과 타당화에 중점을 두었고, 중 · 고등학생의 세 행동체계의 실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세 행동체계의 잠재프로파일 일을 도출하고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세 행동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가정과교육의 사명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세 행동체계의 실태가 세 행동체계를 강화시키는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는지 개발된 세 행동체계 척도를 활용하여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 방법에 대해 검증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author declares no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authorship or publication of this article.

참고문헌

- Brown, M. M. (1980). *What is home economics education?* Minnesota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Vocational Education.
- Brown, M. M. (1985). *Philosophical studies of home economics in the United States, Vols. I and II: Our practical-intellectual heritage*. East Lansing, MI: Michigan State University.
- Brown, M. M., & Paolucci, B. (1979). *Home Economics: A definition*. Washington, D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Chae, J. H., Park, M. J., Kim, S. G., & Han, J. (2017). *Instruction to home economics education*. Paju: Gyomoon.
- Cho, S. J., & Kim, H. J. (201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healthcare ability scale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nce*, 20(4), 103-115. <http://doi.org/10.21797/ksme.2018.20.4.008>
- Choi, S. H., & Choi, H. Y. (2014). Understanding of adolescents'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ment tool.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3(4), 833-852. UCI: G704-001037.2014.33.4.008
- Choi, S. Y. (2020). Evaluation of dietary life instruction in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by converging habermas's three systems of ac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4), 561-583. <http://doi.org/10.6115/fer.2020.038>
- Choi, S. Y., & Chae, J. H. (2020a).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American high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based on habermas's three systems of action: Focusing on the learning objectives and activitie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2(1), 107-125. <https://doi.org/10.19031.jkheea.2020.03.32.1.107>
- Choi, S. Y., & Chae, J. H. (2020b). Development of dietary life curriculum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home economics that integrated Habermas's three systems of ac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2(2), 117-139. <https://doi.org/10.19031.jkheea.2020.06.32.2.117>
- Chung, O. B., Lim, J. H., Chung, S. H., Kim, L. J., & Yoon, J.

- E. (2012).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directed learning inventory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9(2), 227-249.
- Chung, S. W., Jeong J. C., & H, S. (201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measuring scale of legal consciousness for youths. *Korean Social Studies Association*, 19(3), 49-63. UCI: I410-ECN-0102-2023-300-001187369
- Gable, R. K., & Wolf, M. B. (1993). *Instrument development in the affective domain* (2nd ed.).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
- Gong, M. J. (2019). *Comparative analysis of life competencies between the normal and concerned group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emotional and behavior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Eui university, Busan, Korea.
- Habermas, J. (1987). *Erkenntnis und interesse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J. J. Shapiro, Trans.). USA, MA: Pol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68).
- Ju, S., & Yoo, T. (2016a). Core-concepts and three systems of action based home economics curriculum design. *The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2(2), 123-141. UCI: G704-SER00000664.2016.22.2.015
- Ju, S., & Yoo, T. (2016b). Development of content structure focusing on three systems of action for the 2009 revised current home economics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8(2), 1-19. <https://doi.org/10.19031/jkheea.2016.06.28.2.1>
- Kang, H. C. (2013). Discussions on the suitable interpretation of model fit indices and the strategies to fit model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2), 653-668.
- Kim, J., Kim, Y., & Kim, D. (201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eam connectedness scale in physical education class.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21(2), 103-120.
- Kim, J. H. (2016). *The effect of agreement-oriented controversial issues instruction on sense of commun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 Kim, J. Y. (2013). *The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relationship with their fathers on social problem solving,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decision mak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W. S. (2015). *Reading Habermas*. Seoul: Sechang Publish.
- Kwon, M. K. (2019). *The effects of career exploration program on th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free learning year*. Unpublished master's thesis,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Nam, Korea.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 Lee, D. Y. (2019). *Influence of students with little cultural experience in museum and gallery on the aesthetic sensi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Korea.
- Lee, E. C., & Kim, M. J. (2010). Developing a scale of spirituality for Korean adolescent.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8(3), 243-263. UCI: G704-001282.2010.18.3.003
- Lee, E. H. (2014). *The effect of the empathy based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on empathy ability and aggres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Chung Buk, Korea.
- Lee, G. W., Jeon, J. C., Heo, G. C., Hong, W. P., & Kim, M. S. (2009). *A study on the design pla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for promoting the core competency of Korean in the future* (RRC 2009-10-1). Chung Buk: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e, H. J. (2014). *The effect of using portfolio-based lessons on the development of self-identity of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nd its two-year follow up: Focusing on the 'understanding adolescents' unit in middle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 Lee, H. J., & Cho, J. S. (2005). Importance of objectives of housing unit in home economics by three systems of action of home economics teachers in middle school.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7(4), 117-131.
- Lee, K. W., Jeon, J. C., Heo, K. C., Hong, W. P., & Kim, M. S. (2009). *A study on the design plan of elementary and*

- secondary school curriculum for promoting the core competency of Korean in the future* (Research report RRC 2009-10-1). KICE.
- Lee, M. H., & Jung, T. Y. (200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earning motivation scale. *Studies on Korean Youth*, 18(3), 295-321. UCI: G704-001385.2007.18.3.013
- Lee, S. J., & Yu, N. S. (2017). Development of instrument for measuring home economics-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H-PCK).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9(1), 35-36. <http://dx.doi.org/10.19031/jkhea.2017.03.29.1.35>
- Lee, Y. S. (2002). *The relationships between identity and job interest amongst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McGregor, S. L. T. (2020). Engaging home economics through new philosophical idea: A commentary on international contribu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Home Economics*, 13(1), 43-71.
- Ministry of Education (2015). *Practical arts(technology & home economics) /informatics subject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notice No. 2015-74). Sejong: Author.
- Nam, H. S. (201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erceived youth empowermen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gi University, Gyeonggi, Korea.
-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Administrators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2008). *National standards for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asoning for action standards and process questions*. https://www.leadfcsed.org/uploads/1/8/3/9/18396981/process_framework_overview.pdf
- Oh, H., & Kim, S.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youth academic resilience scale.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9(1), 47-63.
- Oh, K., & Lee, S. H. (2021). Application of home economics teaching-learning plan in the clothing for teenager's empower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3(1), 169-184.
- Oh, Y. H., & Chae, J. H. (2005).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s' family value and needs on learning objectives of family life area according to the three systems of ac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7(2), 239-255.
- Park, M. J. (2008). Development of empowerment scale instrument and needs assessment of home economics teachers' empower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3), 131-143.
- Park, Y. M. (2019). *The effects of personality discussion class using picture-books on social-emotional competences and critical thinking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aegu, Korea.
- Ryu, H. R., Chong, Y. S., & Chae, J. H. (1997). A study needs perception toward educational purposes of home economics subject in middle school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6(1), 111-127.
- Saleebey, D. (1992).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London: Longman Publishing Group.
- Seo, J. W., & Lee, Y. J. (2016). An instructional model for the improvement of decision making skills in the 'technical innovation and invention' unit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curriculum. *Journal Institute of Industrial Educators*, 41(1), 108-127.
- Shim, E. K. (2011). *Comparative study of life competencies between general youths and youth committee members of regional youth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Eui University, Busan, Korea.
- Shin, H., & Yum, S. (201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school engagement scale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2(2), 177-202.
- Shin, M. K. (2017). *The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communicative ability and self-esteem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 Staland, E., & Strom, S. (1996). *Family, food, and society: A teacher's guide*. WI: Wisconsin State Dept. of Public Instruction, Madison.
- Yang, J. S., & Yoo, T. M. (2018). The ideal portrait of human being pursuing in home economics education based on key competence and key concept. *The Journal of Practical Arts Education Research*, 24(1), 35-65. <https://doi.org/10.29113/skpaer.2018.24.1.035>
- Yoo, N. S., & Kim, Y. N. (1997). Teachers' needs assessment on

food/nutrition of secondary home economics education for three systems of ac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9(1), 83-94.

Yoo, T. M., & Lee, S. H. (2011). *Practical problem based home economics class: Theory and practice*. Seoul: Book Korea.

Yoo, T. M., Yang, J. S., Ju, S., & Yu, N. S. (2019). Achievements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throughout its 30 year history and future vision and miss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1(4), 163-192. <https://doi.org/10.19031/jkheea.2019.12.31.4.163>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가정교과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세 행동체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세 행동체계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여 예비문항으로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해방적 행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각 행동체계별로 35개 문항, 총 105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예비문항을 가정교육학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아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두 차례 실행하였다. 개발된 예비문항 70개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166부를 회수하였다.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회수된 설문지를 탐색적 요인 분석한 결과 7요인 38개 문항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사 문항을 구성한 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여 548부를 회수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기초생활능력 5문항, 자기관리능력 4문항, 정보처리능력 4문항, 의사소통·대인관계능력 12문항, 비판적사고력 3문항, 의사결정능력 7문항, 임파워먼트 3문항 총 38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 모형의 적합도는 $\chi^2=1846.741(p<.001)$, CFI=0.865, TLI=0.853, RMSEA=0.058로 나타났고, 각 문항별 표준화 계수는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정교과에서 중·고등학생의 세 행동체계의 실태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측정 도구로 볼 수 있다. 세 행동체계 척도는 자아정체감 척도의 하위요인인 자기수용성, 미래계획성, 친밀성, 독특성과 사회참여 척도와 유의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공인타당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문접수일자: 2023년 8월 14일, 논문심사일자: 2023년 9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9월 18일